

비상경제장관회의

23-1-3

(공개)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2023. 1. 4.

관계부처합동

순 서

I. 2022년 투자 계획 및 집행 실적 1

II.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계획 2

III. 효율적 투자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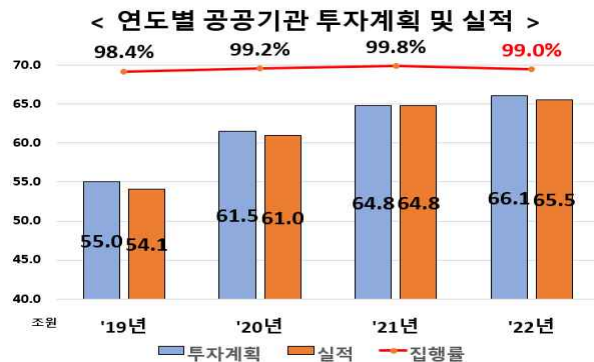
I. '22년 투자 계획 및 집행 실적

□ **[투자 계획] 총 66.1조원** (전년 실적 대비 +1.3조원)

-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목표를 전년대비 1.3조원 증가한 66.1조원으로 수립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39개) 중 국내 실물투자 규모가 적은 금융성 기관(13개) 제외한 26개 및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총 27개 기관

- 경영여건 악화,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투자 집행 목표를 당초 67.0 → 66.1조원으로 조정('22.7월)



□ **[집행 실적] 역대 최고 수준인 65.5조원 집행**

- (집행여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원조달 어려움 등 집행여건 악화
- (집행실적) 집행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인 추가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으로 전년 64.8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한 65.5조원 집행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월 예산에 대한 ❶계약예규 특례적용* 및 ❷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여건 지속 개선

* 선금특례 적용을 통해 국가철도공단 등 0.2조원 추가 집행

< '22년 분기별 계획 및 실적 (단위 : 조원,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5.3 (23.1)	15.8 (23.9)	35.6 (53.8)	33.9 (51.3)	46.9 (71.0)	46.6 (70.4)	66.1 (100.0)	65.5 (99.0)

Ⅱ. '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계획

< '23년 공공기관 투자 기본방향 >

-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상저하고의 경기상황 적극 대응
- ② 조기 집행을 통한 상반기 경기 보강 가시화
- ③ **민생안정·국정과제*** 중점 투자를 통한 정부 정책 적극 뒷받침

* ①주거안정지원, ②에너지 공급, ③필수 인프라 구축, ④가계 지원 등

□ [투자 여건] 경기 위축 전망,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 (외부여건)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 전망
 -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에 회복이 기대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예상
- (내부여건)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 지속
 - * 재무위험기관(14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5년간 13.0조원 사업 既 조정('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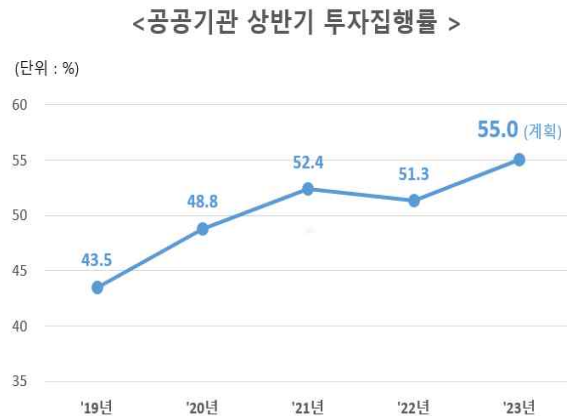
□ [투자 계획] 총 63.3조원 (상반기 내 55% 조기집행)

- (규모)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23년 투자 목표를 63.3조원으로 수립
 - * 연도별 목표(조원) : ('19) 55.0 → ('20) 61.5 → ('21) 64.8 → ('22) 66.1 → ('23) 63.3(잠정)
- 국정과제 및 필수 핵심서비스의 '23년도 투자소요 및 주요 사업의 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
 - *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 596억,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 528억 등

□ **[투자효율화]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되 상저하고의 경기여건에 대응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추진**

○ (경기 보장) 상반기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확정된 투자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 각 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는 55% 수준으로 설정
- 경기보장 뒷받침을 위해 상반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



* ('22 상) 실적 33.9조(51.3%) vs ('23 상) 목표 34.8조(55.0%)

○ (중점 투자)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

* 주거복지사업 5.0조(LH), 일반철도사업 2.2조(철도공단), 원전건설 2.1조(한수원), 가계재기 지원 및 기업정상화 지원 1.1조(캠코) 등

○ (재무건전성 강화) 각 기관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22년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에 지속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목표 : ('22) 187.6% → ('26) 169.4%
재무위험 14개 기관 부채비율 목표 : ('22) 336.4% → ('26) 265.0%

- 다만,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규모에도 경기 대응 및 대국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Ⅲ. 효율적 투자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세부계획 수립] 신속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 확정

-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후속 수립(1월)
- 세부 투자계획 수립 시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

□ [투자 효율화 유도] 적기 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지원

- (공공예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하여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23.1월 시행)
- * (기존) 총사업비 1,000억 & 기관 및 정부부담 500억 이상
(개편) 총사업비 2,000억 & 기관 및 정부부담 1,000억 이상
- (출자·출연 사전협의) 기존의 개별사업 단위로 실시하던 사전 협의를 반기별 일괄 협의로 개선('23.1월 시행)
- (사업비 관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억제
- *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20.9월 시행)

□ [집행 점검]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23년도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 현황 점검
- ①기관별·사업유형별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 ②기관의 자체적 집행 점검 노력 제고 추진
- 경기 상황 등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우수 사례 적극 공유
- 조기집행 등 상반기 55%이상 집행을 달성 점검('23.7월)
- (주무부처 역할 강화) 산하 공공기관의 집행 애로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